

## ‘카지노 세계’에 연민은 없다 — 2000년대 금융자본주의와 한국소설의 대응\* —

한 만 수\*\*

### 요 약

이 글은 1997년 소위 IMF사태 이후 한국에도 본격 도입된 금융자본주의에 대해 한국소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점검한다. 금융자본주의는 부익부빈익빈의 세계화를 추동하면서 인류의 경제를 파국에 몰아넣고 있어 카지노자본주의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다. 이에 대한 저항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전통적인 사회경제의 영역 말고도 기본소득·토빈세 등의 제안들이 그 일부이다.

카지노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수탈은 농업자본주의나 산업자본주의와는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훨씬 강력하며 광범위하다. 또한 이는 단순한 경제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리나 양심 도덕 등과도 긴밀하게 관련되기도 한다. 2000년대 한국소설은 이 빈곤문제에 대해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만 막상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다. 이 글은 김애란을 살펴면서 빈곤소설의 주요한 경향을 비판하고, 그 경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변별점을 지니는 사례로서 염승숙과 윤고은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빈곤소설의 방향을 제시한다.

염승숙의 『노웨어맨』은 저학력의 자영업자가 2대에 걸쳐 파산하는 과정을 그린다. 아버지 세대보다 아들 세대에 빈곤화가 더 심화되었음을 보여

\* 이 논문은 제52회 한국현대소설학회 학술대회(2017. 10. 21)에서 발표한 「2000년대 카지노자본주의와 한국소설의 대응」을 다듬은 것이다.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이수형 교수, 심사를 통해 좋은 비판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 그리고 논문작성에 도움을 준 이종호 박사와 서인숙 석사에게 감사한다.

\*\*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주며, 문학담당층과 거리가 있는 자영업자라는 직업에까지 소설적 영역을 확장시켰다.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은 중견기업의 제3세계 지사에 근무하는 중간간부라는, 자본운동의 세계성을 보여주기엔 적합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서사와 상징을 통해 그 비인간성을 고발한다. 이 기업이 제3세계에 인공적으로 싱크홀을 만들고 이 인공재난을 여행상품으로 팔아 이윤을 축적하며, 주인공의 노동이 이를 위해 복무한다는 설정이다.

세 작가에게 공통적인, 아마도 2000년대 소설 전반에 해당될 수 있을, 문제점이라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빈곤화를 가져오는 원인, 즉 금융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 둘째, 자본주의의 외부에 대한 모색이 전혀 없다. 윤고은의 제3세계조차도 완전히 자본주의에 포박된 상황으로만 그려지며, 보수진영에서조차 다양하게 시도되는 대안적 흐름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2000년대 한국소설을 읽는 독자는 빈곤화의 원인과 탈출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현실의 인접화문과 대안운동이 그 원인과 대책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음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괴리는 한국소설로부터 독자들이 멀어져가게 만드는 힘 중 하나일 것이다.

주제어: 2000년대 한국소설, 카지노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 김애란, 염승숙, 윤고은

## 목차

1. 넘치는 연민, 보이지 않는 출구
2. 한국 문학, 자본의 흐름을 놓치다
3. 금융자본의 시대, “적이 보이지 않는다”
4. 김애란과 빈곤소설 - C-M운동에 대한 연민과 한계
5. 『노웨어맨』 - 희생자 뿐, 약탈자가 없다
6. 『밤의 여행자들』 - 세계시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갈등, 또는 공모
7. ‘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소설

“가난과 병과 무지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 많은 줄까지는  
알았어도,  
사람이 어째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에 지고 하느냐는 것은  
아직도 알지를 못한다”  
- 채만식, 「탁류」 중에서

우리들의 전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중략)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 있다.  
- 김수영, 「하... 그림자가 없다」 중에서

## 1. 넘치는 연민, 보이지 않는 출구

가난이란 한국 근현대문학의 단골소재이다. 근대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빈부격차는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속화되어 왔으니 거의 당연한 노릇이라 할 수 있다. IMF이후 본격화된 금융자유주의시대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소설에서 빈부문제는 단지 가난의 현상 묘사에 그칠 뿐이다. 카프소설이나 1970, 80년대 소설과는 달리 가난의 원인을 진단하거나 그 탈출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민중은커녕 시민도 되지 못한’ 인물들만 등장시키는 니힐리즘이 짙다는 지적,<sup>1)</sup> 또는 ‘후기 유토피아주의가 아니라 탈유토피아주의라든 좋으니 제발 대안에 대해 꿈이라도

1) 함돈균, 「이 時代의 혁명, 이 時代의 니힐리즘」, 『문학과 사회』 통권79호, 문학과지성사, 2007, 8, 310-320면.

꾸어보자'는 식의 제안이<sup>2)</sup> 나오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

원인을 잘못 찾으면 해결책도 엉뚱해지게 마련, '을' 끼리의 경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한국사회에 넘쳐난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1위의 입시지옥으로 대표되는 학력경쟁, 취업전쟁을 당연시하고 벌어지는 스펙경쟁, 그밖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인세대와 청년세대,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의 일자리 경쟁은 서로에 대한 공격성향의 강화로 표출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소설들은 이 각각의 국면들을 제법 성실하게 포착해왔다. 그러나 고발과 연민에 머물 뿐이다. 빈곤이라는 결과 만을 주목할 뿐, 빈곤'화'의 동력학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빈곤화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가능하다면 그 탈출구까지 제시해주는 문학은 왜 없단 말인가? 요컨대 카지노 앞에서, 도박에 참여하지도 않은 채 모든 것을 박탈당한 빈자들에게 대해, 문학이 그저 연민에 머무른다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카지노'라는 이윤기계는 연민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므로. '카지노 난민'들에게 연민의 문학은 이미 충분히 공급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빈곤화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카지노자본주의적 세계화에 있으며, IMF사태 이후 한국 역시 세계 금융자본주의에 본격적으로 포섭되었으니 벌써 20년이 지났다. 20년이라는 세월은,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문학적 대응은 원래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라는 원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sup>3)</sup> 이 글이 혹여라도 그 대응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정도는 다루어야 하겠지만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선 ㉠만을 살피기로 한다.

2) 강계숙, 『그대 아직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문학과 사회』 통권79호, 위의 책, 252-262면.

3) 노조 결성 붐과 거의 동시적으로 노동문학이 일어났던 80년대와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현재 세계는 농업자본시기나 산업자본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작동되는 금융자본시대를 맞이했으며, 문학적 대응 역시 달라져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는 빈곤화가 아니라 빈곤을, 원인과 대책을 빠뜨리고 현상만을 다루는 문학으로 나타났다.

㉡ 대표적인 문학적 현상은 편중된 인물만을 등장시킨다는 점이다. 고통 받는 가난한 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뿐, 부자(또한 그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전문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빈부 문제란 권력관계이므로 부자 없이는 빈자는 있을 수 없다.

㉢ 다른 분야에서는 금융자본주의의 메커니즘과 대응책 모색이 활발하다. 문학과 이웃 영역의 담론적·실천적 대응을 비교하고, 문חק계가 이웃영역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이유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2. 한국 문학, 자본의 흐름을 놓치다

“가난과 병과 무지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 많은 줄까지는 알았어도, 사람이 어째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에 지고 하느냐는 것은 아직도 알지를 못한다”고 이미 채만식은 80년쯤 전에 말한 바 있다.<sup>4)</sup> 자본주의가 막 도입된 시기의 채만식이 이 괴물을 이해하려는 갈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 시기 주요 작가들 거의 모두가 비슷했다. 염상섭은 돈에 대한 집요한 문학적 천착을 통해 가난의 문제에 접근했다. 김동인은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김유정은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5)</sup> 이광수 등의 농촌소설 역시 농민의 빈곤상을 그리는 동시에, 나름대로 가난의 원인을 진단하

4) 채만식, 『채만식전집』 제2권, 창작과비평사, 1987, 366면.

5) 이주형, 『「소낙비」와 「감자」의 거리』, 『국어교육연구』 제 8집, 국어교육학회, 1976, 12, 59-84면.

고자 했다. 좀더 분명한 이론을 통해 가난의 원인을 파악했던 것은 물론 카프소설이어서, 지주(또는 마름, 공장주)와 소작인(또는 직공)의 계급갈등을 그리면서 나름의 탈출구까지 제시했다. 식민지시기 작가들은 빈곤의 원인에 대해 포착하려는 노력을, 그 진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기울인 셈이다.

해방 직후에도 채만식의 『논이야기』, 염상섭의 『양과자잡』 등에서 그 전통은 이어졌으며, 특히 '복극성'이 분명하게 존재하던 1970-80년대 문학에서 가난의 원인진단과 탈출구에 대한 모색은 활발했다.<sup>6)</sup> 본격적인 노동소설은 두말 할 필요조차 없겠거니와, 조정래의 『태백산맥』 역시 식민지시기 토지모순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모순을 작품의 주된 내적 갈등으로 삼았다.<sup>7)</sup>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난장이 가족이 처한 곤경은 집까지 빼앗아가는 금권과 정치권력 때문임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난·쏘·공』에서 부자와 빈자는 재개발땅지를 통해서 만나며, 『태백산맥』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싸움을 직접 그려 보인다.

한국자본의 성격이 아직 농업자본, 산업자본 중심에 머물고 있던 동안, 그리고 식민권력이나 독재권력과 자본의 유착관계가 폭넓게 인식되었던 시기라면, 한국문학은 자본운동에 대해 성실하게 추적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1997년 IMF사태 이후, 한국소설은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하는 일을 거의 포기한 듯하다. '봉건적 착

6) 1970, 80년대 노동자문학에 대한 관심은 최근 다시 학문적 조명을 활발하게 받고 있다. 특히 이정숙,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8)을 참조할 수 있다.

7) 물론 자본주의 도입 이후 80년대까지의 문학 역시 대체로 빈자의 표상뿐 부자의 형상은 거의 없으며, 드물게 나오더라도 매우 피상적이고 평면적인 인물들 뿐이다. 대머리, 배불뚝이, 호색한, 수전노 등의 몇몇 단어가 즉각 환기시키는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학력자본이 높은 사람도 강남에 몰려있고, 세련된 패션과 매너, 그리고 미적 감수성과 (성형을 통한)외모까지 갖춘 사람들 역시 그러하다.

취와는 달리 노자(勞資)관계의 착취는 화폐를 경유하므로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마르크스적 명제가 금융자본주의에 이르러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점과 관련될 것이겠거니와, 다른 몇 가지 요인들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 80년대 노동문학에 대한 거부감, 문학적 미학주의의 형성,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두 민주정권이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처럼 되어버리기도 했던 아이러니컬한 상황 등이다. 어쨌건 이 시기 썬부터 소설에서 부자 인물들이 거의 사라져버림은 이를 말해주는 대표적 현상이다.

### 3. 금융자본의 시대, “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 자본주의가 도입된 지도 이제 10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자본주의는 세계 시장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지로 나아갔으며, 금융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화폐가 모든 것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시스템 속에 거의 모든 인류가 고통 받게 되었다.<sup>8)</sup>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외국환거래액 중에서 무역에 쓰인 것은 1%에 지나지 않으며, 주식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액 역시 전체 주식거래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sup>9)</sup> 나머지 99%의 돈은 ‘돈 놓고 돈 먹기’에 쓰이는 카지노자본주의 속에서 결국 돈 많은 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이 쌓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본과 권력의 핵심에서도 불거져 나온 지도 제법 오래되었다.<sup>10)</sup>

8)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및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허경·양진성 옮김, 『부채인간』, 메디치, 2012 참조.

9) 빌 토튼, 김종철 옮김,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 녹색평론사, 2013, 33-47면 참조.

10) 다보스포럼이 사회적기업 세션을 마련하는가하면(2013년), 조선일보조차 자본주의 4.0 특집을 연재했다(2011년).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즉 금융자본의 중심성이 확보된 이후에 한국소설의 자본운동에 대한 대응은 앞서 살핀 것처럼 오히려 후퇴했다. 그 가장 커다란 까닭은 아마도 금융자본은 잘 보이지 않는 자본, 이해하기 어려운 자본이라는 점에 있으리라.

카지노자본이 화폐를 기업과 국가 사이에서 어지럽게 이동시키는 일은 단지 컴퓨터 속에서 0과 1의 숫자의 배열이 바뀌는 일에 불과하다. 자판을 잠깐만 두들기면 천문학적 액수가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한다. 가히 파시스트적 속도이고 액수이다. 일반인들은 자본의 하드디스크를 들여다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거니와, 본다 해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들은 기껏해야 폰뱅킹 따위를 통해서 이 같은 화폐의 불가시적 '순간이동'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인들이 금융자본주의를 체감하는 일도, 그려내는 일도 곤란해졌다. 문학이 금융자본주의와 개개인의 일상적 삶을 연결시키는 작업은 그리 만만치 않게 된 것이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속에서 부자와 빈자는 오로지 돈을 매개로만, 비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 화폐가 만들어내는 익명적 관계는 주식회사에서 그 극단을 보여준다. 예컨대 삼성전자에서 주주(50% 이상이 외국인이다)와 노동자는 현실 속에서 만날 일이 거의 없다. 노동자들이 만나는 것은 기껏해야 중간관리자들이고, CEO조차도 주주들에 의해 고용된 자에 불과하다. 여름내 땀 흘리면서 가꾼 벚가마를 바리바리 신고 지주의 집까지 터벅터벅 걷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비정규직 노동을 함으로써 회사에 생기는 이윤이 맨하탄의 어떤 주주의 통장에 쌓여가는 현상은 관찰하기 불가능하다.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형상화하기도 만만치 않다.

부자와 빈자 사이의 관계가 좀 복잡해지기도 한다. 대기업 노동자가 애먼글면 돈을 모아 주식투자라도 하면, 그는 그 회사에 관한 한 주주자본가가 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룬다.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많은 주식회사의 대주주이니, 노동자가 그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주가 되어 버리는 일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이처럼 간단한 보기만 들더라도, 현실 경제 속에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관계는 전혀 새로운 형태로 접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0억의 인류가 ‘익명으로 유지되는 자본의 네트워크’에 매달린 채로, 서로가 서로의 목을 죄고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화가 불러온 문명사적 비극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금융자본으로 이행한 뒤에, 이제 부자는 빈자와 직접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어찌 보면 문학이 더 이상 자본운동에 대해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릇일 수도 있겠다.<sup>11)</sup> 그러나 다들 알듯이 오늘날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경제체제보다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부자의 손아귀로 넘겨주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는, ‘1대 99사회’라는 주장이 단적으로 드러내보이듯이 ‘만약의 근본’이라 말해도 좋다. 이 메커니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말 한가한 상황은 못 되는 것이다. 게다가 문학과는 달리 현실세계는 이에 대해 제법 다양하고 의미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번져간 점령시위는 그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기본소득 대안화폐 공유경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대안운동은 이미 한국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2000년대 한국소설은 자본에 억압당하는 빈자들을 묘사하는 데만 몰두한다. 비교적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김애

11)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아마도 학문과 교육의 분업화현상을 꼽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문학이나 문예창작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철학이나 경제학 등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란, 서하진 등)이 강한 가운데, ‘오리배’나 ‘기린’(박민규), ‘투명인간’(성석제) 등의 상징에 좀 더 의존하거나, 또는 유머나 환상성에 무게를 두는(윤성희, 이기호) 식의 작은 차이만 있을 따름이다.<sup>12)</sup>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본운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 시대란 뭔가 구체적 형상을 보여주어야 하는 문학으로서는 불리한 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분명히 가난이란 부유함 없이 작동하지 않으며 그 역도 참이다. 특히 보이지 않는 자본은 그 불가시성 때문에 더욱 강력한 힘으로 빈자들을 착취하는, ‘보이지 않는’ 벨벳 감옥이다.<sup>13)</sup>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자본운동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학적 기법들을 고안해내야 할 판인데, 이미 있는 대안운동들에 대해서조차 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197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이행하면서 한국자본이 눈부시고 잔혹하게 진화해가는 동안, 한국문학의 대응은 ‘난장이’에서 ‘투명인간’, ‘오리배’, ‘기린’으로 바뀌는 정도에 그쳤다면 얼마나 쓸쓸한 것일까.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빈곤소설의 대표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김애란의 단편들을 검토한 뒤에, 다소 예외적인 작품들로서 염승숙의 『노웨어맨』과 윤고은의 『밤의 여행자들』을 다루기로 한다. 이 두 작품 역시 빈곤의 원인과 대안제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

12) 르포적 감각으로 빈부문제를 다룬 장강명과 조남주, 수전노적 인물의 내면과 삶을 정밀하게 추적한 배수아 정도가 이런 흐름에서 약간 결을 달리하지만, 빈곤의 원인 및 해결의 제시와는 거리가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장강명 식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한국이 싫어서』, 민음사, 2015) 이미 확립된 세계시장 속에서 근본적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조남주의 『1982년생 김지영』(민음사, 2016)이 큰 파장을 일으켰음은 새로운 소설적 문법에 대한 요구가 제법 강력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닐까 한다. 배수아가 탐색한 이색적인 경지는, 자본운동의 구조가 아니라 수전노의 심리 문제이지만,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3) 조지 리처는 ‘벨벳 감옥’을 막스 베버가 말했던 ‘강철 감옥’의 현대적 버전이라고 말한다. 김종덕 옮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시유시, 2003. 참조

만, 금융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비교적 접근해있음을 주목한 선택이다. 이런 대조작업은 빈곤소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4. 김애란과 빈곤소설 - C-M운동에 대한 연민과 한계

널리 알려져 있듯이 김애란은 미취업자, 비정규직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고통을 그려내는 데 집중해왔다. 오늘날 핵심적 사회문제 중 하나인 청년실업에 대해 김애란만큼 적실하게 묘파한 작가도 드물며, 빈곤소설의 전형적 경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 세대의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 충실한 문학적 대응을 했지만, 그렇다 함은 어떤 국면에서는 덕목이 아니라 결함이 될 수도 있다. 다소 긴 설명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좀더 이야기해보자.

마르크스의 모델에 따르면 자본운동이란 M-C-M운동, 즉 화폐(Money)를 투자해 상품(Commodity)을 만들고 판매를 통해 그것을 다시 화폐(M)로 바꿔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또는 이 자본운동의 과정에 동참하면서) 노동자들은 C-M-C운동, 즉 자기 자신을 상품(C)으로 만들어 팔아 돈(M)을 벌고 이 돈으로 생필품(C)을 구입하여 살아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게 마련이니, 항상 C-M국면이 가장 핵심적이다. 마르크스의 표현대로라면 “목숨을 건 도약”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본이건 임노동자건 화폐를 얻기 위한 도약에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본은 상품을 만들어놓고 팔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며, 노동자로서의 취업이 어렵다 함 역시 자신을 상품으로 팔아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 함이다. 자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입시로 대표되는 스펙열풍이 생겨난다. C-M국면에서 대중은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취직하고 싶다"<sup>14)</sup>. 그러니 김애란을 필두로 한 여러 빈곤소설들이 다투어 주목하고, '먹고사니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은 바로 이 돈 벌기 경쟁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본운동은 이윤이 목적이지만, 노동자들의 C-M-C운동은 생존에 급급한 것이다.

이처럼 화폐 획득경쟁의 운동장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 가라타니 고진이 주창하고 실험에 옮겼던 시민화폐 역시 그 대안들 중 하나이다(대안화폐·기본소득·토빈세 등과 함께)<sup>15)</sup>. 고진의 시민화폐운동과 김애란의 청년실업을 나란히 놓고 살펴보자.

자본운동은 상품이 더 큰 자본으로 전화되는 과정, 즉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건 도약을 요구받는 것인 바, 이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진의 시민화폐 주장은 바로 이 C-M국면에서의 소비자의 단결에 의한 사회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애란은 취업난이란 전체 자본운동 속에서 생겨나는 난국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았다. 청년실업은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현실의 담론장에서는 노년실업과 경쟁하는 형국이기도 하다. 또 이런 세대론 자체가 계급론이나 젠더론과 맞서면서 일자리(화폐)를

14) 강준만의 책 이름, 개마고원, 2010

15) 물론 고진의 시민화폐운동은 일본의 현실 속에서 실패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제법 활성화되었던 지역화폐운동과 소비자운동 역시 김애란의 시대에는 시들해졌다. 김애란이 무관심한 것은 아마도 이런 현실과도 유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제기의 의미가 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안화폐 운동은 세계 곳곳에서 제법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한 것이다.

놓고 경쟁하고 있기도 하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김애란의 청춘실업론은 자칫하면 ‘을’ 끼리의 경쟁을 부채질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것이다.

그 근본적인 까닭은 실업과 빈곤화의 원인에 대해 별다른 성찰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춘실업이건 노년실업이건 취업난은 부익부 빈익빈의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하다. 김애란은 그 중에서 하나인 빈익빈만을, 그것도 빈익빈의 일부에 불과한 청춘실업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부유함 없이 가난이란 존재할 수 없다면, 단순한 빈곤이 아니라 빈곤화의 매카니즘을 그려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김애란의 인물들은 너무 편협한 직업군에 치중되어 있다. 그가 등장시키는 인물들은 취업예비군들이 대다수이며 취업자라 해도 대부분이 주로 소규모 입시학원 강사 등 영세한 자본의 말단 노동자들뿐이다. 더구나 그들의 직장에서의 삶은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는다. 예외적으로 단편 「서른」에서는 다단계 회사에 다니는 인물을 등장시키지만, 극도의 손실에 고통 받던 인물은 후배를 대신 다단계에 밀어넣고 빠져나올 뿐이다.<sup>16)</sup> 말단 노동자에 불과한 이 인물로서는, 다단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하는지 전달하기 어렵다. 앞서 밝혔듯이, 자기 세대와 계급에 근접한 직업군의 인물에 대한 적실한 관찰이라는 김애란의 장점은 곧바로 한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sup>17)</sup>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는 급속하게 이뤄졌으며, 특히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노동의 종말”은

16) 그 뒤에는 윤리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회구조의 문제는 삭제되고 개인윤리의 문제로만 치환된다는 점 또한 이 작품의 한계가 아닐까 한다.

17) 김애란은 실업과 빈곤에 대한 철학적 사회적 인식도 좀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기실 개개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만한 재화를 공동체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란,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이다. 우리의 헌법적 권리에 속하며, 산업화 이전 모든 공동체가 이 시스템을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해오기도 했던 것이기도 하다.

세계적인 대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실업과 빈곤에 대해 현상적으로만 접근하는 작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특정 작가에게 이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 하지만 김애란 식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스비슷한 문학적 대응은 너무 많고 구조적 접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 이제 무언가 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때 몇 걸음 나아간 염승숙과 윤고은이 눈에 띈다.

## 5. 「노웨어맨」 - 희생자 뿐, 약탈자가 없다

김애란을 비롯한 빈곤소설의 인물들이 대부분 미취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생인 것과는 달리, 염승숙의 「노웨어맨」에서는 주인공 장공수도, 그의 아버지 장용도 장사가 직업이다. 장용의 슈퍼마켓은 대형유통체인 때문에 파산했으며, 막노동으로 돈을 모아 알량한 보따리장사를 시작한 장공수는 95만원을 아버지께 장용에게 보낸 직후 파산 위기에 놓인다. 아버지보다 더 영세해졌지만 역시 장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화폐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건 도약’을 시도하는 소규모 자본은 실패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노웨어맨」은 이처럼 파산한 소규모 자영업자를 등장시켜 빈익빈, 일자리 축소, 거대자본의 횡포 등 문제를 골고루 포착한다. 빈자본의 연민에 주력하는 다른 빈곤소설보다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다. 이런 약육강식의 경제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파산한 자이거나, 파산할 예정인 자”들일 뿐이라고 염승숙은 직설한다. 더구나 이 파산(예정)자들은,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시대 화폐경제에서 양산되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무화되어 버리는 ‘노웨어맨’이다.

누가, 언제 처음으로 이 말을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파산자들을 이렇게 불렀다. 노웨어맨이라는 단어는 온 사회를 휩쓸었다. [중략] 노웨어맨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인지 혹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인지, 그 뜻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여기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하고, 장공수는 ‘노웨어맨’이라는 말을 접할 때마다 생각했다. 그리고 불쑥불쑥 머리꼭지까지 치받는 화를 참기가 어려웠다. 모두가 가짜인데, 진짜를 흉내 내기에 급급할 뿐인 세상에 살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노웨어맨이라니, 아무 것도, 아니라니.<sup>18)</sup>

염승숙이 말하는 ‘가짜’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구분하고 앞의 것을 진정한 가치로, 뒤의 것을 가짜 가치로 인식하는 다소 오래된 구분을 떠올리게 한다. 그 연상을 따라가자면 망해가는 장공수의 슈퍼마켓에서 콩나물이 시들어가는 장면(상품은 화폐와 교환되지 못하면 목숨을 잃는다)은 상징적이다. 또 이 소설의 배경은 오로지 도시의 어두침침하고 황량한 장소들일 뿐, 따사로운 햇빛과 푸르른 풀빛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콩나물과 자연은 ‘진정한 가치’이지만 화폐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 없이 시들어간다는 것.

그리 읽을 수 있다면 ‘모두가 가짜인생을 살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염승숙의 진술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가짜인생’을 살고 있다.’ 염승숙의 가짜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인 화폐’<sup>19)</sup>, 그것을 쫓는 카지노자본주

18) 염승숙, 『노웨어맨』, 문학과지성사, 2011, 68-69면.

19) 짐멜에 따르면, “목적론적 관계의 연쇄의 무한한 연장”에 의해서, 그 연쇄고리마다 교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인 존재가 되었다. 즉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시인들은 열매를 따거나 사슴을 쫓았지만, 현대인들은 글을 쓰거나 아침을 하거나 넥타이를 맨다. 그 행동들은 매우 복잡한 관계의 연쇄를 통해 의식주로 바뀌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화폐를 통

의적 삶을 암시하고 있다.

『노웨어맨』에서는 직설적으로 교환관계를 도식화하고 있기도 하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교환관계는 A-A'인데 A'는 A보다 적게 마련이며, 또는 기껏해야 A-A의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20)</sup> 그러나 A-A'라는 염승숙의 교환모델에는 화폐와 재화 사이의 구분이 없으며, M-C-M운동의 한 측면, 즉 빈익빈만을 보여줄 뿐이다. '세상에는 파산(예정)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누군가가 파산하면 그 돈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마련이다. 부익부 없이는 빈익빈도 없는 것인 바,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면 자영업자의 파산을 통해 이익을 보는 자, 좀 더 큰 자본 쪽에 있는 인물도 등장시켜야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극도의 빈곤을 그리다가, '진짜/가짜'의 논의로 다소 어정쩡하게 이행해간다는 점도 아쉽다. 마우리치오 라자라토에 따르면, '노웨어맨'들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채권채무관계란 단순한 경제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주체성을 체련하고 길들이며 제조하고 틀 지우며 빚어낸다'. 라자라토가 니체를 빌어 말하듯이 "사회의 구성과 인간의 조련(야수적 인간으로부터 길들여지고 문명화된 동물, 즉 가축 같은 인간을 이끌어낸다)은 오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sup>21)</sup> 대출에서의 신용이란 지불능력으로 환치되며, 선과 악, 신용과 불신이라는 도덕적 개념은 채무사회에서는 지불능력 있음 혹은 지불능력 없음으로 전이된다. 양심의 가책, 종교적 구원, '미래를 지향하는 기억'으로서의 약속과 부채상환의 책임감 등을 주조해내고, 그리하여 '자기기획자(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해서만 교환이 이뤄진다(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도서출판 길, 2013, 주로 321-475면 참조). 짐멜은 이 과정이 문명화의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지만, 카지노자본주의 속에서 그 '문명'이란 목시록의 재현이 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20) 염승숙, 앞의 책, 49면.

21)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허경·양진성 옮김, 『부채인간』, 메디치, 2012, 68면.



스스로 착취하는)로서의 근면한 노동윤리’는 시민들의 내면을 온전히 지배하게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공공부채를 짊어지는 현상이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채권채무관계는 이제 전 세계인을 ‘빛진 시민’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sup>22)</sup> 말하자면 세계(자유)시민이라는 근대적 이상은 이 카지노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세계빛쟁이’로 전락해버리는 셈이다. 라자라토에 동의하건 아니건,<sup>23)</sup> 파산이라는 주제는 염승숙의 ‘진짜/가짜’ 논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상상력에 연결될 수 있음만은 확인된다.

『노웨어맨』은 아버지와 아들 2대에 걸친 중산층의 ‘수난 이대’를 그려 보인다. 다른 빈곤소설의 미취업자들보다는 좀 더 자본운동에 접근해 있는만큼 자본운동을 그리기에 비교적 유리했다. 또 대졸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아버지와 아들을 등장시켰다는 점도, 작가의 생물학적 경험과 유사한 인물들이 과다하게 등장하는 최근의 문학적 경향<sup>24)</sup>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파산자만 그럴 뿐 약탈자들에 대해서 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김애란 류의 빈곤소설들과 마찬가지로, 좀 더 깊이와 넓이를 함께 확보할 수 있었던 주제를 진짜/가짜 식의 고식적 발상으로만 다루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노웨어맨(nowhere man)은 ‘나우 히어 맨(now-here man)’이기도 하다. 하이픈 하나만 넣으면 그리 얽게 되며, 무엇보다도 실제 현실이 그러하다. 『노웨어맨』이 가족소설이라는 익숙한 형식에서 벗

22) 라자라토, 위의 책 2, 3장에서 요약 인용.

23) 라자라토의 주장은 아직 통설로 자리잡지는 못했고, 통쾌하고 전복적인 가설에 비해 구체적 입증은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인문학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바는 자못 크다고 판단한다.

24) 빈곤소설 인물들의 직업은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생 등 소설작가들이 실제로 경험했으리라 추정되는 직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미생』, 『송곳』 등의 웹툰작가들이 치밀한 현장취재를 통해 직업적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냈음과 대조적이다.

어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의 현실에 입각해 파산자들을 인식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6. 『밤의 여행자들』 - 세계시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갈등, 또는 공모

윤교은이 『밤의 여행자들』에서 등장시키는 인물은, 김애란이나 염승숙의 인물들이 부러워함직한 정규직, 그것도 제법 큰 기업의 중간관리자이다. 그러나 C-M국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어서, 주인공 요나는 성추행을 당하고도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극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해외지사로 옮겨갈 뿐이다. 취업하고 승진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즉 C-M국면에 포박된 ‘임금노예’임을 새삼스레 보여준다.

주인공을 제3세계 지사의 중간관리자로 설정한 덕분에 생기는 이 점은 더 있다. 중간관리자이므로 세계시장 속의 자본운동의 일면을 포착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스펙터클화된 재난, 자본화된 재난 및 여행’을 보여주는 서사는 주목에 값한다. 노동자를 C-M국면에 몰입하도록 묶어두는 일이 M-C-M이라는 자본운동의 한 국면에서 필수적이며, 다시 자본에 더 많은 이윤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이 제3세계에는 재난적 상황으로 되돌아감을 포착해내는 것이다.

그 재난이 싱크홀로 설정되어 있음은, 한국에서도 한동안 큰 사회적 문제가 된 데다 지반의 붕괴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위를 걷고 있던 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sup>25)</sup> 싱크홀은

25) 짐멜에 따르면 그리스 철학의 ‘실체’ 개념은 토지와 유관한데, ‘비교적 안전하고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되는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삶의 연속성을 확고부

우리 삶의 기반인 화폐경제시스템을 급습해오는 공황을 닮아있다.<sup>26)</sup> 어느 날 저녁뉴스에 보도된 뒤 실업자와 홈리스, 사오정과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로 우리의 삶을 덮쳐 왔던 한국의 IMF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단지 이미지의 유사성에 그치는 게 아니다. 회사 이름(정글), 주 인공 이름(요나), 제3세계의 재난관광지 이름(무이; ‘無異’ 또는 ‘無二’) 등의 작명부터, 재난이 (화폐경제시스템처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설정까지 그러하다. 너무 직설적이 아닐까 싶으리만큼 정글자본주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무 문제없는 듯 세계를 지배하다가 어느 날 아침 싱크홀이 되어버리는 세계카지노자본의 운동.

재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심리묘사도 주목할 만하다. 동정과 연민에서 시작되어, 불편함, 내 삶에 대한 감사, 나는 살아남았다는 우월감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수잔 손택 역시 이와 유사한 현상에 주목하여 ‘관음증적인 향락’이라고 불렀다. 끔찍한 전쟁사진을 보는 서구 시민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관음증적인 향락(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아직 죽지 않는다, 나는 전쟁터에 있지 않다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럴싸한 만족감)을 보건대,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시련, 그것도 쉽사리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낄법한 타인의 시련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듯하다”<sup>27)</sup>고 말한다. 이 관음증은 “연민은 우리의 무능

동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확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게오르그 짐멜, 앞의 책, 383면). 그렇다면 싱크홀 현상은 이제 토지는 더이상 인간의 법률에 의해 보존될 수도 없고 삶의 연속성을 확신하게 해주지도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셈이다.

26) 이 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일제는 만주침공을 감행했으며 ‘전쟁 고원경기’를 통해 자본축적의 모순을 잠시 그리고 타국에 이전했을 뿐이다. 1930년대 한국문학의 응성은 바로 이 만주침공으로 인한 발표지면의 급증과도 관련된다. 한만수,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제3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12, 255-285면 참조.

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주는 셈<sup>27)</sup>이기 때문에 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손택은 덧붙인다.

손택은 주로 끔찍한 이미지들의 세계적 유통의 심리를 분석하고 휴머니즘적 윤리회복의 호소에 주력하고 있을 뿐, 그 재난의 원인이 (또한 재난이미지들의 유통 자체도) 주로 자본운동에 기인함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윤고은은 인간을 학살하면서 돈을 버는 자본운동을 그려 보인다. 재난의 원인도, 그 재난이미지의 소비도 자본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윤고은이 한국의 여행객과 ‘무이’의 재난 사이에 설정한 거리는 단순한 심리적(미적) 거리에 그치지 않으며, 한국과 제3세계라는 물리적 거리 역시 작동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의해 단일화된 세계시장을 인식하며,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둘이 아님(‘무이’)을 보여준다. 관음증이라는 손택의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

세계시장을 작동시키는 주된 힘은 분업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무한적 연쇄에 있다. 당장에 인공재난만 하더라도 그 피고용자들에게 이 운동의 일부분만을 나눠 맡기는 것으로 작동한다. 일부만을 나눠 맡은 만큼 전모를 알기 어렵다. ‘무이’의 재난이 인공적인 기획재난임을 누구도 폭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누구도 최종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 고객으로서 재난여행에 참여하였을 경우 역시, 그것이 조작된 인공재난임을 알 수 없게 된다. 채플린이 『모던타임즈』에서 이미 묘사한 바, 컨베이어벨트 위의 나사 2개만 돌리는 단순반복의 강제되고 분업화된 노동은 이미 인간의 사유체계까지 상당부분 점령했다.

그런데 꼭 재난여행을 떠나야만 실감하는 것일까? 예컨대 우리의 장바구니 속에도 세계시장은 투입해 들어와 있다. 우리의 밥상에 올

27)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150면.

28) 위의 책, 154면.

라오는 다국적 식품들이 과연 먹어도 좋은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유통되어 내 밥상에 오르게 되는지 알 길 없다. 단지 전세계적 자본운동과 그 물질적 기반인 ‘분업화된 테크놀로지의 사슬’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내 밥상까지 값싸고 편리하게 배달되었으니 먹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거쳤을 여러 나라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막연히 믿을 뿐이다. 아니 실제로 그 안전성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믿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싼 음식이 얼마나 많은 노예노동과 환경침탈을 거쳐 내게까지 왔을까에 대해서도 애써 외면한다. 어찌겠는가,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는 노릇, 그저 잊고 먹는 수밖에.

세계시장은 이처럼 값싸고 편리한, 그러나 위험하고 수탈적인 시스템이다. 또한 인간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지구적 거리를 압축시켜 우리 삶을 그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구겨 넣어 버린다. 그때 유력한 반응은 이런 것이다. “내게 제발 진실을 말하지 말아줘.”

진실이란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 여러 인물이 각각 알 수 있음직한 정보를 한데 모아내는 이 소설은, 일종의 ‘디스크 조각모음’ 같은 기능을 가지는 셈이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거나 잊으며 지내오던 인간들은 어느 날 재난 여행을 통해 관음증적 향락을 느끼는데, 이 또한 자본의 ‘기획상품’이며 제3세계의 인류를 학살하는 일이라는 설정이 지니는 힘이다.

『밤의 여행자들』은 다소 상징적으로나마 세계자본운동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금융자본이 아니라 서비스자본을 다루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 이윤축적의 메커니즘 만은 적실하게 묘사하고 있다. 단지 자본주의의 외부에 대한 상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인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란 겨우 200년 남짓 되었을 따름이며, 세계시장을 완성한 듯 보이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자본주의의 외부에 대한 상

상과 모색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윤고은에게서 아쉽게도 이런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글 속의 ‘준 원시상태’(즉 자본주의 이전)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무이’의 사람들의 삶조차도 역시 자본주의에 완전히 포섭당한 것으로만 그릴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집마저도 관광상품으로 내어주었으며, 자본이 자기 집을 관광지로 선택해줄기를 목매달고 기다릴 뿐이다. 이 세계시장에서 어떤 출구도 보여주지 않는 작품이니, 그저 목시록적 소묘에 가깝다.

이에 비해 손택은 스펙터클화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연민으로 충분치 않다고 직설한다. “(끔찍한 전쟁이미지를 안전한 후방에서 바라보는—인용자)특권을 누리는데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우리가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식으로, 가령 우리의 부가 타인의 궁핍을 수반하는 식으로)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채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sup>29)</sup>

윤고은이 ‘고통의 스펙터클화’ 상품을 통해 자본의 이윤이 증식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손택을 초과했다면, 그에 대한 대응에서는 손택에 미달한 게 아닐까 한다. 손택의 직설과는 달리 윤고은은 소설을 택한 사람이다. 소설가로서 윤고은은 좀 더 구체적 사건을 통해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싱크홀’은 이미 우리의 ‘장바구니’를 재난으로 채워버렸다는 인식, 싱크홀이란 눈에 보이지 않건 보이건 우리 삶의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아니 세계시장에 포섭당하기 이전의 ‘무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전달하는 『오래된 미래』 식의 접근이라도 병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

29) 같은 책, 154면.

## 7. ‘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소설

김수영이 이미 반백년도 더 전에(1960) 말했던 ‘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술은 금융자본주의시대 자본운동에 적용할 때야말로 생생한 실감을 얻는다. 여러분의 일터에 누군가 찾아와서 망치나 펜을 빼앗아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인터넷에서 수십 억 달러의 돈이 오가면서 수만 명을 줄지에 실직자로 만들어버리는, 자본 그 자체를 상품으로 삼는 M-M-M운동으로서 카지노자본의 운동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투명망토’ 속의 이 마물을 어떻게 보이도록 만드는가? - 문학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화두는 이것이리라. 언어 매체로서 문학은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해결해왔던 문제이기도 하니 결코 난감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sup>30)</sup>

현재 한국소설은 이 문명사적 위기 속에서 ‘빈익빈’에 대한 연민에 머무는 경향이 강력하다. 그러나 카지노 주인들에게 연민이란 사치스러운 단어에 불과하다. 전세계적 카지노자본주의라는 ‘보이지 않는 적’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직관과 상상력에 기대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인간의 오감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론, 특히 사회과학 이론이 유용하겠다. 문인들의 사유와 공부의 폭 좁은 분과학문 체계 속에 머물지 않고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우리 곁에 이미 다양한 이론과 사회 속에서의 실험들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대안화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적정기술, 공유경제 등등.

30) 앞서 살핀 대로 니체는 화폐, 자본운동, 신과 양심을 중흥무진하며 꿰어내었다. 라자라토는 금융자본주의 상황에서 빈부격차와 가난을 중심으로 니체를 재해석하였다. 그러나 그 상상력의 천재적 독창성에 비추어 엄밀한 논증은 매우 부족하다. 그들의 영역에서는 제법 심각한 결함이다. 하지만 문학은 엄밀한 입증의 필요성이 없다. 만일 라자라토와 니체 등의 문제의식을 참고하면서 마음껏 작가들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전혀 새로운 빈곤(화)문학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실험들에 대한 문학적 관심은 세계적으로도 그리 흔하지 않지만 참고할만한 보기는 있다. 기본소득은 토머스 모어가 이미 500년 전에 『유토피아』에서 언급했으며 SF소설 『뒤 돌아보며』 등으로 이어졌다. 대안화폐에 대한 소설 역시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가 이미 1920년대에 발표한 바 있다.<sup>31)</sup> 하지만 한국문인들은 ‘헬조선’의 대안을 꿈꾸는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꽤 인색한 편이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론과 실천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가 고정관념이라면, 문학의 상상력과 환상성은 ‘보이지 않는/있어야 할’ 것을 선취할 힘을 지닌다. 예컨대 ‘한 달 100만원이라도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상상력은 왜 소설이 되지 못한단 말인가?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은 물질적 생산력의 비약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과 환경재앙이라는 쌍둥이 괴물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다. 거의 모든 지구적 재난은 자본운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보급된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등 생태적 재난부터, 취업난 홈리스 디아스포라 등 사회적 재난까지, 그 근본적 원인을 찾을 때 금융자본주의가 면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문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라타니 고진이 근대문학이 끝났다고 말했던 것이었다면, 이 글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sup>32)</sup>

31) 소설 『작은 왕국』에 대해서는 가라타니 고진이 해설을 곁들여 소개한 바 있다(『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6, 제4장)

32) 한국소설이 카지노자본주의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면, 다른 장르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를 드러내고 있다. 마이클 무어감독은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를 통해 ‘고발에서 대안으로’ 이행해갔으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경제운동에 대한 다큐, 르포, 인터넷 글쓰기는 매우 활발하다. 노조운동이라는 소재가 “80년대의 철지난 유행가”가 아닐 수 있음을 웹툰 『송곳』은 입증한 바 있기도 하다. 사회과학 쪽에서는 대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저들이 나와 있기도 하다(굳이 하나만 꼽는다면 천주희 외, 『노오력의 배신』, 창비, 2016. 참조). 만일 소설이라는 근대적 발명품의 근본적 한계 때문에 대응하지



그 전세계적 재난 속에서 만들어지는 무수한 난민 중에서 김애란 등 많은 작가들은 미취업자를 포착했고, 염승숙은 대자본의 탐욕에 파산당하는 자영업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고은주는 자본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먹고사는 중견기업의 중간관리자를 골랐다. 자본운동의 세계성, 그리고 탐욕적 자본에 기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포착하는 데 비교적 성공한 것은 고은주였다. 김애란의 미취업자들이 취업하게 된다면 고은주의 주인공의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이며, 고은주의 관리직 인물들이 염승숙의 인물들에게 ‘2대에 걸친 재난’을 만들어내면 그들은 고과평가를 잘 받아 승진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을’들이 작은 차이에 매몰되어 경쟁하는 것이 현실 속의 지배적 경향이라면, 문학은 이보다 넓고 정확한 시야를 제공해줌이 마땅할 것이다.

이 세 작가의 인물들 (즉 미취업자와 자영업자와 정규직)이 골고루 등장하면서, 또한 펀드매니저 등 카지노자본주의의 핵심에 종사하는 인물들과 세계적 부호들까지 얽히고설켜 만들어내는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작품이 나온다면 어떨까. 물론 현실 속에서 이들은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설의 강점 아닌가. 굳이 예를 든다면, 카지노자본의 이동 경로인 온라인 속으로 인물이 들어가 버리는 사이버소설적 기법의 활용은 어떨까?

이런 다양한 형식적 실험과 함께, 대안사회를 향한 현실 속의 다양한 움직임까지 포착한다면, 카지노자본주의에 대한 한국 소설의 대응은 사뭇 다른 단계로 진입해갈 수 있을 것이다. 김수영 식으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언제나 쉬지 않는 우리들의 싸움’을 제대로 포착하는 소설이 산출되기를 기대한다. <끝>

---

못하는 것이라면 무언가 다른 것이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소설로도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염승숙, 『노웨어맨』, 문학과지성사, 2011.

윤고은, 『밤의 여행자들』, 민음사, 2013.

2. 단행본 및 논문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일본정신의 기원』, 이매진, 2006.

강계숙, 「그대 아직 유토피아를 꿈꾸는가」, 『문학과 사회』 통권79호, 문학과지성사, 2007, 8. 252-262면.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문화과학사, 2014.

강유정, 「Anti idea:뉴 로맨서의 개인암호」, 『문학과 사회』 통권79호, 문학과지성사, 2007, 8. 263-272면.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도서출판 길, 2013.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허경·양진성 옮김, 『부채인간』, 메디치, 2012.

모리스 고들리에, 오창현 옮김, 『증여의 수수께끼』, 문학동네, 2011.

빌 토튼, 김종철 옮김,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 녹색평론사, 2013.

브로니슬라프 게레맥, 이성재 옮김, 『빈곤의 역사: 교수대인가 연민인가』, 도서출판 길, 2010.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개마고원, 2017.

유려한, 『사이언스 월든』, 북랩, 2016.

이정숙,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가난의 정동화」,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4. 8.

이주형, 「『소낙비』와 『감자』의 거리」, 『국어교육연구』 제 8집, 국어교육학회, 1976, 12. 59-84면.

장강명, 『한국이 싫어서』, 민음사, 2015.

정여울, 『빈곤의 박물관을 향한 미완성 노트:2000년대 작가들이 그린 가난의 풍경』, 『문학동네』 통권52호, 문학동네, 2007. 8. 382-402면.

- 조남주, 『1982년생 김지영』, 민음사, 2016.
- 조지 리처, 김종덕 옮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시유시, 2003.
- 채만식, 『채만식전집』 제2권, 창작과비평사, 1987.
- 천주희 외, 『노오력의 배신』, 창비, 2016.
- 한만수, 『만주침공 이후의 검열과 민간신문 문예면의 증면, 1929~1936』,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12. 255-285면.
- 함돈균, 『이 時代의 혁명, 이 時代의 니힐리즘』, 『문학과 사회』 통권79호, 문학과지성사, 2007, 8. 310-320면.
- 홍기빈,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 날개, 2012.
- 황중연, 『매 맞는 아이들의 정치적 상상력 : 2000년대 소설의 한 단면』, 『문학동네』 통권52호, 문학동네, 2007. 8. 358-381면.
- \_\_\_\_\_, 『탕이를 위한 변명』, 문학동네, 2012.



「Abstract」

There is no Compassion in ‘Casino World’  
—Financial capitalism and Korean novels in  
the 2000s—

Han, Man-Soo

This article roughly examines how Korean novels are responding to financial capitalism, which has been brought to Korea since the so-called IMF crisis in 1997.

Financial capitalism is pushing the economy of mankind to the catastrophe by promoting the globalization of the rich and poor, the nickname of casino capitalism. Resistance to this is also being done on a global scal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socioeconomic areas such as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basic income and Tobin tax are some of the attempts..

Exploitation taking place in financial capitalism, unlike the capitalist agricultural or industrial capitalism does not look good in the eyes, the force is more powerful and widespread. It is not just a matter of the economy, it is also a problem that is closely related to ethics and morals of conscience. In the 2000s, Korean novels also deal with this poverty very heavily, and this paper analyzed and analyzed the works of Yeom Seung-suk, and Yun Go-eun.

Kim Aa-ran describes the suffering of poverty by introducing occupations familiar to the unemployed and his generation, such as

part-time students and lecturers. This phenomenon is common to most of the poverty novels in the 2000s, and the exceptional one is Yeom Seung-suk, and Yun Go-eun's work.

Yeom Seung-suk's <NOWHERE MAN> depicts the process of bankruptcy of both low-education self-employed father and son. Over time, it shows that poverty has become worse, and has extended the fictional area to the lives of people who are far away from writers in generations and education. It extended the novel sphere to the less educated and older generations than most of Korean writers.

The Night Travelers introduce a person who is suitable for showing the global character of the capital movement, a middle executive who works for the third world branch office of a midsize company, and accuses the inhumanity through narrative and symbolism. It is very impressive that this company is making a third world sinkhole artificially, selling this artificial disaster as a travel product and accumulating profits, and setting up the hero's labor to serve it.

Common to all three writers, and thus possibly flaws in the 2000s novels, defects, There are two kinds of things. First, it failed to draw the cause of poverty, the mechanism of financial capitalism. I wonder if these novelists would make a fund manager appear. Second, there is no search for outside of capitalism. Even the Third World, which Yoon Eun is drawing, is entirely subsumed to capitalism, and there are no alternatives to the globalization of poverty, which is being tried variously even in conservative camps.

In short, readers of Korean fiction in the 2000s will not know at all about the cause and way out of their suffering poverty, but this topic is being explored very actively in reality. I think this divergence is one of the forces that let readers get away from Korean novels.



Key words: Casino capitalism, Korean fiction in the 2000s, Kim Ae -  
Ran, Yeom Seung-suk, and Yun Go-eun, The rich become  
richer and the poor become poorer

투 고 일 : 2017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7년 11월 15일-1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